

제 55회 호남예술제 심사평

참가자 많고 수준도 월등

성악 초등부 정영기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기량이 비슷하여 심사위원들이 애를 먹었다. 3·4학년은 수도 가장 많았지만 예전에 비해 수준도 월등했다. 보통 변성기 때라 고음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다. 다만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박자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웠다.

노래는 호흡이 95% 차지한다. 악보에 없는 긴 호흡은 노래의 맥을 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박자에 맞추어 고개나 손을 흔드는 버릇은 일찍 바로잡아야 하며, 양팔을 옆으로 벌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도 교정해야 한다. 무대보다 무대에서 즐기면서 연주해야 한다. 잊박자와 부점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전남대 교수)

자세 표정도 성악의 일부

성악 초등부 김용진



중학생들은 대개 아직도 변성기를 지나는 과정에 있기에 소리를 내기도 듣기도 다소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맑고 투명한 소리로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던 반면, 소리가 어둡고 발음 전달이 잘 안되거나 곡 선징에서 무리수를 둔 경우도 있었다.

맑고 깨끗한 음색, 정확한 음정과 발음, 여기에 적당한 힘이 실리는 노래는 청중과 교감할 수 있는 필수 요소다.

고등부에서 이번 대회를 빛나게 했던 몇몇 참가자들이 있어 매우 기뻐다. 무대에서는 신체적 자세와 표정까지도 연주 내용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전주대 교수)



사물놀이 단체 기량 뛰어나

국악 서담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음악적 수준이 높아졌다. 단체분야에서는 많은 노력을 요하는 관현악 부터 선반, 앉은반 사물놀이가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으며, 개인분야에서는 경연자들이 충분한 연주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표현과 무대매너가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무대도 중요하지만 경연이 다른 출전자의 음악을 경청하며 비교하는 의미 있는 현장학습의 장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수상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경연대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목표의식을 갖게 되고 또 열심히 해 한 계단 진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남도립대 교수)

파트별 어울림에 노력해야

합창 이은철



각각의 파트별 개성을 살려 노래하면서 각 파트가 또 서로 어울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멋진 합창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번에 출현한 팀들의 경우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도교사나 학생들이 많이 노력한 점이 합창에 묻어나서 감동을 줬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맞는 곡으로 선곡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이 앞선 경우가 있었다. 또 전체적으로 소리의 크기가 너무 작은 점은 아쉬웠으며 소리는 아름다운데 무슨 가사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낀 경우도 있었다. (전남과학대 교수)

고학년들 연주기량 뛰어나

피아노 초등부 조성경



초등부 1·2학년의 경우 어린학생들임에도 전반적으로 무대에 잘 적응했고 지정곡을 잘 소화했으며 실수가 거의 없었다. 간혹 긴장한 탓인지 지나치게 빠른 템포로 연주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연주의 균형을 잃은 경우도 있었으며 어린학생이기 때문인지 각 학년간에 음색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학년 최고상 수상자는 뛰어난 연주기량을 보여주었다. 고학년의 경우 잘못된 페달 사용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고른 연주 실력을 갖추었다.

음악은 올바른 곡의 해석, 이에 맞는 음색과 테크닉, 템포 등을 생각하고 느끼며 연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부대 교수)

기술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피아노 초등부 구재향



올해는 고등부에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경쟁률이 높았다. 예년에는 소량의 연습곡을, 본년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 한곡을 연주하였는데 음악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기본이 충실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은 연주에 무리가 있고 자연스럽지 않았다. 유명 연주자들의 음반을 듣고 템포만 모방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 음악적인 면은 소홀히 하고 기술적인 면에만 치중함으로써 좋은 연주를 하기 어렵다.

지정곡들은 피아노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작품들이므로 단순히 경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공부하는 자세로 배우고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호남신학대 교수)

송원초 합주부 연주 인상적

관악·관현악합주 황성규



예년에 비해 참가팀이 많지 않았으나 음악적 수준은 향상되어 있었다. 참가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모습이 눈에 띄는 인상적이고 열띤 경연이었는데, 송원초등학교의 합주부는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지휘자의 비트와 연주자간의 교감이 이뤄지지 않고 지휘 따로 음악 따로인 경우가 몇몇 있었다. 지휘법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훈련이 없이 무대에 선다면 그 지휘자는 내용이 없는 숙임수로 연주를 한 셈이 된다. 지휘자는 동작이 실제의 연주에 효과적으로 쓰이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지휘 기술을 더욱 정확하고 철저하게 학습하고 노력해야 한다. (전남대 교수)

느낌 충만한 연주 보기 좋아

관악 신상호



관악은 울림, 즉 배음이 충실한 공명된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교적으로 어려운 곡을 감흥 없이 연주하는 것 보다는 곡이 조금 쉽더라도 공명이 충실한 소리로 음악을 즐기며 노래하는 연주가 바람직하다.

초등부는 호흡이나 발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음악의 감흥이 어눌한 학생도 있었으나 나름대로 편한 연주가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 음악 느낌이 충만한 연주를 하는 학생은 연주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고등부는 편차가 많았다. 독주보다 반주 소리가 더 커 음악에 손실을 주는 연주도 있었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호흡이 안정되지 않아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도 있었다. (전북대 교수)

학생들 눈높이 맞는 선곡을

현악 배상철



바이올린 초등부 5·6학년, 중등부 1·2학년, 고등부 등은 전반적으로 좋은 테크닉을 구사하는 연주를 하였으며, 비올라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음악적이고 인상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첼로 초등부는 공부하는 인구의 감소로 저변 확대가 걱정됐다.

전반적으로 테크닉과 악상 등 기계적인 연주보다는 눈높이에 맞는 곡을 선택해 부담되지 않고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연주가 이루어 질수록 공부하기 바란다. 학생들이 현악기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의 기술과 음악을 모방하며 성장한다. 선생님은 올바른 기술과 음악을 철저히 지도해야 하며 학생은 자기의 독창적인 음악과 본인에게 맞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목포대 교수)

예년보다 수준 높아져 뿌듯

한국무용 배성환



예술의 길목을 걸어가면서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 제 55회 호남예술제 심사를 하기 위해 광주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 흥분과 기대를 감출 수 없었다. 지난 대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참가자들의 수준은 높아졌고 대회의 분위기도 좋아졌다.

몇 년 전만해도 어수선했던 예술의 길목에서 그 분위기를 차분하면서도 격조 있게 더해 놓은 무대 위 참가자들의 노력과 품위 있는 호남예술제의 수준에 박수를 보낸다.

호남예술제가 전국경연대회로 더욱 수준 높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통무용에 대한 광주무용예술가들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싶다. (숙명여대 교수)

느낌과 동작 연결 돋보여

현대무용 양순희



초등부는 체력이 좋았으나 동작을 표현함에 있어 음악과의 조화가 미흡함을 느꼈다. 군무에서는 똑같은 템포로 지루함이 느껴졌으나 초등부에서 군무를 선보였다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중등부는 작품은 매우 좋으나 학생의 표현 테크닉이 좀 떨어졌다. 기초 테크닉에 더 충실했으면 한다. 고등부 최우수상 수상자는 느낌과 동작연결이 매우 돋보였다.

현대무용수들은 기계적인 동작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마음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과 육이 결합된 표현이 이루어질 때 멋진 무용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우성대 교수)

한국발레 이끌 발레리나 발굴

발레 박준희



발레지도자들의 노력과 함께 그동안 무용학도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호남예술제는 광주발레의 수준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동아여중 군무는 훌륭한 교사와 훗날 발레를 이끌 나갈 인재들로 구성된 것에 커다란 희망을 보았다. 초등부도 발레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인재들을 보았고, 중등부에서는 아름답고 민첩한 움직임이 돋보였고, 고등부에서는 우리나라 발레를 이끌고 갈 발레리나를 보았다.

발레는 힘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면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해 갈수록 움직임에서는 햇살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을 더해가고 있고, 정확성도 매우 훌륭했다. (조선대 교수)

묘사력 우수한 작품 많아

미술 정상섭



올해 출품한 학생들의 그림은 한층 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보고 또 보고 아주 밀도있는 시각으로 심사를 했다.

어린이 그림에는 어린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창의성이 담겨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서도 독창적이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하고 색감에 대한 감성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에 심사 기준을 두었다.

중·고등부는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 화면 구성이나 사물에 대한 묘사력이 우수하고 표현하려는 주제 의식이 뚜렷한 작품에 비중을 두어 심사했다. (국제현대미술교류협회장)

산문·시 4개의 작품 인상적

작문 전원범



산문이 실제의 경험을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쓰는 것이라면, 시는 느낌이나 해석을 나타내는 글이다. 그런데 산문에는 감동이 없거나 약한 것이 많았고, 시에는 느낌이 없이 설명으로만 이뤄져 있는 것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황현영의 '동화책'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조은의 '우산'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각각 잘 나타나 있었다.

시에서 박동현의 '시냇물'은 시냇물 따라 내 마음이 친구 승도에게 흘러간다고 느낌을 나타내었으며, 김소연의 '무등산'은 아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푸른빛을 키우는 모습으로 무등산을 형상화시키고 있어서 좋았다. (시인)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망수시스템

1. 특수한 세척력 뛰어난 세척기능을 가진 세척제입니다. (신속)

2. 세척력이 뛰어나고 세척력이 강력해 오염제거입니다.

3. 세척제 사용 후 잔류물 없이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4. 세척제 사용 후 세척제 잔류물 없이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5. 세척제 사용 후 세척제 잔류물 없이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6. 세척제 사용 후 세척제 잔류물 없이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7. 세척제 사용 후 세척제 잔류물 없이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문의처: 511-0444, 010-6603-0405

인기폭발 "양코"

1577-4101
010-8932-4114, 010-8932-4114

다이아몬드 大物

1588-4102
010-8932-4114, 010-8932-4114